



의정부주보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녀 이 가타리나 (1782-1839)

어려서 부모와 함께 입교한 이 가타리나는 14세 때 조(趙)씨 성을 가진 외 교인과 혼인하여 3남매를 두었다. 그의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 때 가타리나의 권고로 대세를 받을 수 있었다. 1838년 말, 자신이 살던 고장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가타리나는 집과 재산을 버리고 자녀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조 바르바라의 집에서 지냈다.

그러던 중 이듬해 1839년 전국적으로 기해박해가 일어나, 그는 큰딸 조 막달레나와 주인집 세 모녀와 함께 체포되었다. 포도청에서 딸과 함께 신문을 받은 그는 한 차례 주리를 당하고 옥에 갇혔다. 감옥은 무척 비좁고 불결하였는데, 그 영향으로 가타리나는 3개월만인 9월 어느 날, 염병으로 옥에서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57세였다.

성화_정해숙 作,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



대림 제2주일 •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소리 주보 ▶



입당송 이사 30, 19, 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이사 40, 1-5, 9-11

화답송 시편 85(84), 9, 10 그리고 10, 11-12, 13-14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2베드 3, 8-14

복음 환호송 루카 3, 4, 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마르 1, 1-8

영성체송 바룩 5, 5: 4, 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광야, 새 출발을 위한 장소



유다 광야

성경에서 광야는 이중성을 지닌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 그분을 믿고 따르던 곳이며(예레 2,2; 호세 2,16-17), 동시에 그들의 반역 기질이 단적으로 드러난 장소입니다(탈출 16,2-3; 신명 9,7 등). 이런 이중성은 광야의 특성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선 삶의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에 양 떼가 목자를 따르듯이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런 여건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불평불만이라는 구렁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게 된 첫 번째 위기는 '물과 식량의 부족'(탈출 15,22-24; 16,1-3 등) 그리고 '유목민 아말렉의 공격'(17,8-13)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갈증과 굶주림으로 지친 가운데 아말렉의 급습(신명 25,18)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아말렉이 자기네 터전에 갑자기 등장한 이스라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말해줍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린 곳(신명 8,15), 창조 이전의 혼돈을 떠올려주는 곳 말입니다. 창세 1,2을 보면, 창조 이전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여기서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라는 구절은 히브리어로 [토후 바보후]인데, [토후]는 '불모지' 곧 '광야'를 뜻합니다. 이런 불모지에 주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어 세상을 만드셨듯이, 이스라엘도 온갖 위험이 도사린 혼돈의 땅 광야에서 단련 받으며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

다(신명 8,2-5).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구원의 땅이자 창조 의 땅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하신 이사 40,3의 선포에도 혼돈과 구원, 창조라는 상징성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과거 이집트 탈출의 현장이자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듯이, 제2의 종살이 장소인 바빌론에서도 해방되어 귀향하게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원전 6세기, 건국 이래 처음으로 완전히 패망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바빌론으로 끌려가 유배살이하는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에제 37,11). 그들은 나라를 잃고 패배자가 된 자신들을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유배자로 함께 살았던 예언자 예제키엘은 이스라엘의 부활 환시를 보고 시온으로의 귀환을 예고합니다(1-14절). 바빌론의 한 계곡에 뼈가 잔뜩 쌓여 있는 가운데, 예제키엘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하자 모두 되살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사 40장에서는 이 환시의 실현을 알리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유혹에 빠져 죄의 종이 되더라도, 혼돈과 창조의 힘이 공존하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주님께 의지하며 회복의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暗雲)들’ ⑬
- 팬데믹과 역사의 다른 재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과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회칙 「모든 형제들」은 ‘산산이 깨어진 통합의 꿈’(10-14항),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의 부재’(15-28항), ‘공유의 도로지도 없이 나아가는 세계화와 진보의 길’(29-31항)에 이어, COVID-19 팬데믹과 급속한 기후 변화 같은 역사의 재난들을 보편적 형제애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운으로 성찰합니다(32-36항).

기술이 뛰어나 이름난 장인 곧 명장(名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온갖 심혈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수많은 시행착오(試行錯誤) 끝에 그러한 경지에 올랐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과거 그가 실패한 적이 있었다면, 다시는 그 길을 반복해서 밟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태도는 교훈(教訓)이라 부르는 명확한 기억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감탄케 하는 명품들은 모두 기억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든 집단(사회, 국가, 세계)이든 시행착오에 대한 또렷한 기억과 망각은 그 삶의 품위(인간 존엄과 보편 공동선)를 높이거나 떨어뜨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칙은 ‘삶의 스승인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일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35항).

COVID-19 팬데믹 같은 재난은 인류에게 어떤 교훈을 건넸을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재난을 통해 “우리는 일시적이거나 하나의 지구 공동체라는 진실, 같은 한 보트에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진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진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우리는 홀로 구원받지 않으며 오로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32항; 「교회 현장」 9항 참조). 둘째, 이 재난은 경제-사회생활의 본령(經世濟民)에 관한 교훈도 남겼는데,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이득을 제공하는 시장의 자유보다 언제나 인간 존재들에 관한 염려를 우선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33항). 셋째, 급속한 기후 변화 같은 지구 차원의 재난은, 우리가 실재를 ‘소유하고 착취할 것’으로만 사고(思考)하고 접근하는 방식과 “자기 생활(생명)과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해 우리가 절대 주인”이라 여기는 권리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교훈입니다.

이 같은 교훈을 망각하여 지난날의 전철(前轍)을 답습하면, 삶의 품위는 더욱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교훈의 망각은 공동체의 붕괴와 더 많은 사람의 더 심한 괴로움과 덧없음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교훈의 망각은 더욱 맹렬한 소비주의적 생활양식과 소수 사람만의 더 큰 자유로, 결국 폭력과 상호 파괴로 치닫게 됩니다. 셋째 교훈의 망각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개념이 여느 재난보다 더욱 끔찍한 난투(亂鬪)가 되게 합니다. 이 와중에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도모하는 일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



내 몸과 영혼의 쉼터

이주연 루시아 | 평내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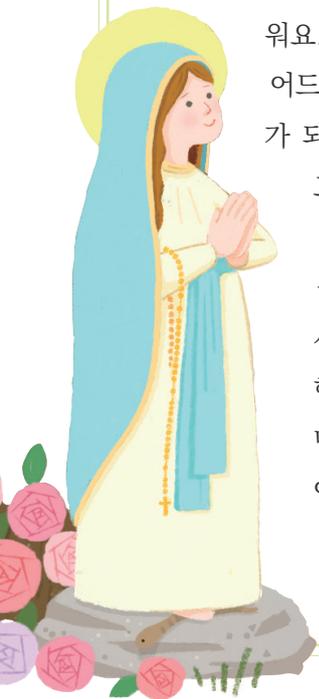
“하느님! 제발 오늘은 미사 시간만이라도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불과 여섯 달 전만 해도 성당에 가고 미사 참례하는 일은 하느님께 간절히 청할 일이 아니었다. 유난히 더위가 일찍 시작되었던 올여름 6월 초였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시작된 소화불량, 어지러움, 호흡곤란, 손발 저림이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금까지도 반갑지 않게 찾아와 온몸의 기운을 빼놓는다. 대학병원에서는 여러 검사를 했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며 불안을 조절하는 약만 처방해 주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다. 최근엔 과다출혈로 빈혈 증세가 심해져 서 있기조차 힘들 때도 있었다.

“하느님, 저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온몸이 돌아가면서 아파요.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나아지질 않아요. 하느님, 저 어떻게 해요? 그동안 선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요. 어릴 땐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 걱정 덜어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어요. 엄마가 되어서 둘째 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제 심장을 롤러코스터에 태우고 제 몸이 부서져라 아이 곁을 지켰어요. 그 와중에 치매 진행 중인 시어머니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셨어요. 부모의 관심을 동생과 할머니에게 뺏겨서 강박증을 앓게 된 큰아이를 지금까지 병원에 데리고 다닙니다.

하느님,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언제까지 촛불처럼 온몸을 태우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들어야 할까요? 하느님, 제 지친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세요!”

주일미사가 끝날 때까지 견뎌보려 했지만, 갑자기 어지럽고 호흡이 가빠지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봉헌을 마치고 조용히 대성전 밖으로 나와 아래층에 있는 고요한 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와 두 아이, 이 세 가족을 10년 넘게 돌보면서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찾던 곳.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울다가 잠이 들던 곳. 십자가와 감실, 성모상이 있고 언제나 침묵만이 흐르던 곳. 세상 모든 소음이 차단되어 오로지 나의 고요함과 하느님의 고요함이 만나는 곳.

그곳에 들어가 감실을 향해 큰절을 올린 후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가만히 십자가와 감실을 바라본다. 몇 분 전 요동치던 호흡과 맥박은 어느새 잔잔한 물결이 된다. 나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주님을 만나 지친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곳, 내 몸과 영혼의 쉼터, 바로 우리 성당 성체조배실이다. ☪





**교구장
동정**

10(주일)	견진성사 - 녹양동 성당
11(월)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 미사 - 명동대성당
12(화)	교구청회의 - 교구청 회의실
13(수)	노인대학봉사자 송년미사 - 주교좌 의정부 성당
15(금)	지구장회의 - 교구청 회의실
16(토)	견진성사 - 지금동 성당
17(주일)	견진성사 - 신원동 성당

이번 주 성경 읽기

12/10(주일)~16(토) :

루카 1,26-45

이 구절을 한 주간 반복해서 읽고 쓰고 묵상합니다. 12/30(토) 한 달간 읽은 내용에 대한 해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교구
소식**

청소년사목국 교리교사회 모집 - 2024년 활동

대상 현/전 어린이부·청소년부 교리교사 (신입 교리교사학교 수료자)

활동 기도, 청소년사목국 교육 준비

기간 2024년 1/1(월)~12/31(화), 1년 문의 031-850-1458~9 청소년사목국



두루미 생명 평화 여행 [철원-연천-파주]

날짜 1/10(수)~11(목) [1박 2일]

장소 민족화해센터

대상 누구나 (선착순 40명)

회비 9만원 (청소년 7만원)

접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전시] 주정순 개인전 - 상상된 자아 (마실가자!)

일시 12/16(토)~29(금) 10:30~17:30 (매주 월요일 휴무)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문의 031-877-9153 갤러리 평화

대림2주 <찬미받으소서> 실천 달력

저탄소 식생활을 추구합니다. (푸드 마일리지, 냉장고 정리, 우리농 나눔터 이용, 로컬푸드)

12/10(주일)	12/11(월)	12/12(화)	12/13(수)	12/14(목)	12/15(금)	12/16(토)
성경 읽고 묵상 하기 (창세 1,9-12)	지구의 아픔과 채식주의 	친환경 과일, 채소 구입하기 (가능한 작고 못생긴 농산물 구입)	그리스도인의 생명 밭상 	가공식품 구입시 포장 뒷면 첨가물 확인하기	소4마리 = 자동차 1대 (SBS 뉴스) 	회칙 「찬미받으소서」 읽기 (34, 40, 50항)

[담화] 제42회 인권 주일 · 제13회 사회 교리 주간

제42회 인권 주일, 제13회 사회 교리 주간을 맞이하여,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 ▶



영상 ▶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청년 하루피정

일시: 12/16(토) 09시~16:30
장소: 가능동 봉사회 교육관 / 회비: 1만원
주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김현우 바오로 신부
문의: 010-9574-6469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이사야서II:
12/27(수)~29(금)
성경완독: 1/5(금)~13(토), 2/16(금)~24(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연말연시: 12/30(토)~1/2(화) 해님이, 해돋이
눈꽃산행: 1/6(토)~8(월), 1/12(금)~14(주일)
1/19(금)~21(주일), 1/27(토)~29(월)
2/3(토)~5(월), 2/14(수)~16(금)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지혜의 샘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프로그램

성탄맞이 말씀과 찬양 축제
일시: 12/11(월) 10시~17:30
1강: 양창우 신부 / 2강: 한영임 수산나 회장
초급 히브리어(구약) 특강 (강의: 서한석 신부)
일시: 12/13부터, 매주(수) 19시~21시 [11회]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샘 5층
문의: 010-3248-9705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대림 피정: 12/12(화), 12/19(화) 10시~16시
대침묵 피정: 12/8(금)~10(주일), 2박 3일
송년피정: 12/31(주일)~1/1(월), 1박 2일
다네이영성수련: 1/10(수)~12(금), 2박 3일
개방의 날: 1/5(금), 매월 첫(금) 10시~15:30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한마음 청소년 힐링 음악 피정

1차: 1/30(화)~31(수), 2차: 2/20(화)~21(수)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 피정비: 10만원
접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의정부교구성령쇄신 금요일기도회

일시: 12/15(금) 21시~24:30
강사: 양창우 요셉 신부(골롬반 외방선교수도회)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문의: 010-2127-0032

송년 감사 피정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일시: 12/31(주일)~1/1(월)
대상: 만 35세 미만 미혼 여성 / 피정비: 3만원
장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본원(미아동)
문의: 010-9816-0072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진접 성당 지휘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교우, 지휘 경력자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주임신부님추천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 진접 성당 사무실
문의: 010-9393-0234 단장

양주백석 성당 사무직원 모집

대상: 세례 받은 교우
사무행정 / 회계업무 / PC사용 가능자
업무: 본당 사무, 회계, 각종 행사 지원,
본당 시설 관리 등
접수: 12/31(주일) 우체국 소인까지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양주백석 성당 지휘자 모집

음악 관련 전공자 또는 성가대(합창) 지휘 경험 있는 분 (우대)
서류: 봉사신청서(교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교적사본
접수: 12/31(주일)까지 (이메일, 우편, 방문)
문의: 031-829-0490 양주백석 성당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홍토킹!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수업: 일대일 수업(회화, 여행영어 등)
혜택: 3회 무료 수업 제공
문의: 053-593-1273

파주 엑소더스 '에투알'(etoile, 별) 봉사자 모집

이주배경 자녀를 위한 청소년성장 프로그램
2024년 2월부터 매주(토) 10시~16시
내용: 학업 이외의 청소년 성장활동
(해외 봉사, 야외 체험, 악기, 댄스 등)
조건: 20세 이상 55세 미만의 관심자
문의: 031-948-8105~6 파주 엑소더스 (금, 토 휴무)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채용

업무: 청소년활동 지도 (활동운영팀)
접수: 1/12(금)까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스페인어/이태리어 강좌

1~2월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개강일: 1/2(화)~3(수) 강좌별로 상이함
수강료: 32만원
수업: 주 2회(문법, 회화) 8주, 총 30시간
왕초보~고급반 단계별 맞춤형 교육
문의: 02-705-8718, scec.sogang.ac.kr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모집

입문/ 중급/ 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 공부
접수: uus.pauline.or.kr, 1/31(수)까지
문의: 02-944-0819~23, 010-5584-8945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첫모임: 12/16(토) 파티마 평화의 성당
대상: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 신자
문의: 010-2607-6324, 010-8719-9900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전화: 02-2274-1843, www.cdcc.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4년 하반기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ac.or.kr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살레시오 수도회 <성소 피정>	1/19(금)~21(주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010-6221-3520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16(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성가 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띠나음악원

가톨릭교리신학원 2024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1/16(화)까지, 자세한 내용 ci.catholic.ac.kr 교리학과 - 주간, 주5일 / 종교학과 - 야간, 주4일 2년 과정 - 선교사(교리교사)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년 과정, 주3일 (신청 자격 확인) 문의: 02-747-8501 가톨릭교리신학원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18(목)~29(월) 유럽 성모발현지 (505만원) 1/26(금)~2/6(화) 이집트 요르단 (515만원) 2/16(금)~27(화) 튀르키예 그리스 (440만원) 3/4(월)~15(금) 스페인,루르드,파티마 (435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 갈등 전화 상담 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green1004.or.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20(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5만원) 3/14(목) 프랑스 성모성지 및 수도원 순례 (13일 560만원) 3/15(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50만원 KE) 4/10(수)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3일 520만원 KE) 5/15(수)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KE)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 야간진료 (화 18시~20:3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된장(1kg) 2만원,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라파엘 해외성지순례

2/19(월) 다낭 성지순례 (149만원) 3/18(월) 알프스와 중세수도원 (519만원) 4/5(금) 프랑스 성모성지순례 (529만원) 4/8(월) 성모님 발현지 (469만원) 4/22(월) 산티아고 순례길과 포르투갈 (44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19(월) 체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11일) 4/1(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18km (12일) 4/17(수) 이탈리아 완전 일주 (11일) 5/20(월) 튀르키예(터키) 그리스 (12일 455만원)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 세부 일정은 www.catholictravel.co.kr 참조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편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일시: 1/5(금)~8(월), 1/26(금)~29(월), 2/16(금)~19(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QR code

DIocese of Uijeongbu

신간

유쾌하게 설레게

저자: 이재근 신부 208쪽 | 12,000원 문의 02-944-0944 www.paulin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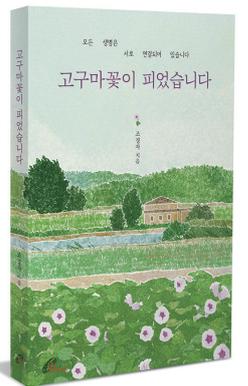
소소한 내 삶에 딱 한 번 더 설레고 싶어!

“공황장애 덕분에 내가 얻은 깨달음이 있다. 바로 마음이 가진 힘이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방패다. 마음먹기에 따라 큰 시련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마음은 혼자서는 힘을 내지 못한다. 본당 신자들 덕분에 내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고 지켜봐 주는 또 다른 마음을 필요로 한다. 그 마음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신간

고구마꽃이 피었습니다

저자: 조경자 수녀 200쪽 | 13,000원 문의 02-944-0944 www.pauline.or.kr



자연을 돌보는 우리는 서서히 자연에 물들어 간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우리 곁에서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원리가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다. 이른 새벽부터 식은 구들장을 덥히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신 아버지의 마음에는 어머니와 우리를 위한 사랑이 있었고, 아버지 곁에 있던 내게도 연로하신 아버지 옆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인권 주일

오늘은 인권 주일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82년부터 대림 제2주일에 인권 주일을 지내기 시작했고, 올해는 마흔두 번째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현대사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위협받는 시기를 보냈고, 그 위협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톨릭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당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짓밟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인권 주일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권 침해의 현장에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1982년 제1회 인권 주일 담화 <인권의 향상을 위하여> (1982.12.5.)에서는 교회가 인권과 사회 정의에 있어 희망의 표적과 원천이 될 것과 그리스도의 진리·정의·사랑으로 실천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제1회 인권 주일 담화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명의로 발표되었고, 이듬해부터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담화가 발표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인권 주일로 시작하는 대림 제2주간을 '사회 교리 주간'으로 지내고 있다. 올해 제42회 인권 주일 및 제13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의 제목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책임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입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호소합니다:

- 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우선적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소외된 이를 위한 관심은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도 포함합니다.
- ② “온갖 배척과 불평등을 멀리하고 균등한 기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에 대해선 공권력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③ “노동자의 존엄성과 안전이 더욱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의 도덕적 차원’은 오히려 악화하였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소득 격차 확대, 사업장의 규모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과 여,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차별과 갈등은 커졌습니다.
- ④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끔찍한 범죄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지만, 학계의 오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성 형벌 정책은 범죄 발생을 억지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 ⑤ “모든 전쟁은 그 이전보다 훨씬 나쁜 세상을 남겨 놓습니다.”
전쟁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그런데 이를 막고자 주장하는 힘의 논리와 무력 증강은 불안을 고조시킬 뿐 올바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평화적 수단 곧 대화와 타협만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1>행 주 성 당</h1>  <p>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7:00 토요일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11:00 교중미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화,수,목,금
sd.uca.or.kr/hjsd1909	홈 페이지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後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13일(루시아): 최순란, 이유신, 김경순, 양경희

전례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12월 24일(일)		12월 25일 (월)
주일 미사	오전 9시,11시	오전 11시
성탄 전야	오후 8시	

※ 주님 성탄 대축일 오전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12월 31일(일)		1월 1일(월)
주일 미사	오전 9시,11시	오전 9시, 11시
1월 1일 저녁 미사	오후 5시	

※ 12월 24일과 31일 주일 전날인 23일과 30일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는 오후 5시에 예전과 같이 봉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선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자선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본당공지

▣ 성탄 판공 성사

성탄 판공 성사는 성탄 대축일 전까지 매 미사 전, 후에 보시고 성사표는 고해실 바구니에 넣으시거나 본당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임 신부님 영명 축일 영적 예물

12월 25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이며 행주 성당 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누어드린 영적 예물 카드를 작성하여 구역 반장님께 전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11월27일 ~ 12월03일)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3건	280,000원
주 일 헌 금		851,000원
하느님의 집	2차	500,000원

▣ 감사헌금

김해옥 100,000원

▣ 교중 미사 예물 봉헌

12월 10일	양경희(루시아), 류은희(소피아)
12월 17일	김남일(미카엘), 배현숙(헬레나)